



김영관 | 조직신학 교수

베리아국제대학원대학교



베리아국제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김영관

오늘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신학연구 주제는 통합연구방식(Integrated Theological Studies)이다. 통합연구방식이란 단순히 교단 산하 교회들의 교리를 변증하는 역할에 제한받지 않는다. 세상의 일상적인 사건들과 현상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 대한 신학적 답변들을 적절히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즈음 대부분의 북미 신학교들은 조직신학이란 용어보다 대중문화신학, 현대신학, 철학적 신학, 젊은이 신학, 영성신학 또는 미래신학이란 주제들로 조직신학 과목 등을 대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북미의 신학교들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과목들을 설치하며 교수들을 채용한다.

지난 20년 동안 북미의 신학교들과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위기는 신학 지원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난과 교역자 수급난이다. 반면 힌두학이나 불교학 또는 토속종교와 같은 아시아 종교학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비기독교 관련 종교학 과정들을 설치한 종합대학들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신학이 서구 학생들로부터도 매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독교신학의 권위적 우월성과 비현대화 때문이다. 이런 권위적 우월성과 비현대화의 뿌리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개혁적인 마인드의 결핍으로 기인된 서구 지향성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사상이 삶의 규범이 되고 제도화된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국가들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며 변화하기를 거부하므로 얻어진 부정적인 모습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나 세계시민들은 우월적이며 권위적인 교회 또는 정부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들을 더 이상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신학 지원생들의 급격한 감소는 기독교 신자수의 감소와 비례한다. 결국 신학 지원생들의 감소로 인한 신학교 교육의 부재는 기독교교회의 몰락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인식해야 할 사실은 서구 기독교교회와 신학교들이 경험했던 그런 수십 년 전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이 지난 수 세기 동안 북미와 유럽이라는 지리적-문화적 한계성 속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속성인 그 시-공간의 초월성과 생동력이 서구 신학자들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서구 조직신학계가 스스로 인정한 과오는 신학해석에 관한 자신들의 편협성과 배타성으로 인한 제한성이다. 이런 편협성과 배타성으로 인한 제한성의 원인은 서구 신학 스스로 역설하는 합리성에서 기인된다. 지나친 합리성의 역설은 인간의 감정과 직관 그리고 영성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에서는 탈구조주의 운동(Deconstructionist Movement) 또는 탈현대주의 운동(Post Modernism)이 출현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성령론은 서구 조직신학계에서 주된 관심을 받고 있는 신학주제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종의 이질성과 문화적 상반성 그리고 교리적 논쟁들을 뛰어넘는 초월성으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즈음 서구 뿐만 아니라 아시아 조직신학계가 추구하는 통합연구방식의 핵심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려는 적극적인 의지이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교단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의 신자들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적-자아적 황홀감에 기초한 종교적 배타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는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이질성과 상반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는 성령의 초월적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조직신학의 그 본질적인 핵심과 내용들을 간파할 수 없다.